

2026년
병오년
신년사



도전과 실행으로 도약하는 CM의 새 지평

배 영 휘
한국CM협회 회장

존경하는 한국CM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사업장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은 예로부터 역동성과 도전, 그리고 먼 길을 단숨에 달려 나가는 추진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병오년은 그중에서도 뜨거운 에너지와 실행력을 의미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바로 그러한 과감한 실행과 실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와 국내 건설산업은 고금리·고물가·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급격한
기술 변화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은 재편되고 있으며, 공급망과 산업 질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산업 역시 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 강화되는 안전·환경 규제,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M은 더 이상 선택적인 보조 역할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품질·안전·
비용·일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넘어, 실행을 통해 성과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CM의 역할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환경 조성입니다.

형식과 규제로 얽힌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CM이 기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CM 서비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전문성 고도화입니다.

전통적인 감리·설계 중심의 역할을 넘어, 사업관리, 리스크 관리, 디지털 기반 관리, 운영·유지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CM 본래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기술 실행력의 강화입니다.

AI, BIM, 데이터 기반 관리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화두가 아닙니다.

2026년은 기술을 ‘도입하는 해’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로 연결시키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지식과 정보 공유를 위한 교육차원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회원사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의 연대와 신뢰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혼자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말처럼, 서로가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 나간다면 CM 산업의 새로운 지평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망설임을 넘어 실행으로,

변화를 넘어 성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